

얼라인 “은행들 주주환원율 50% 수준까지 올려야” 압박

7개 은행지주 이사회에 주주서한
국내 은행주, 평균 PBR 0.3배 거래
“과도한 대출 경쟁 탓 자금 유보”

국내 은행지주들의 심각한 저평가이유가 낮은 주주환원율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동주의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국내 7개 은행지주 이사회에 주주서한을 보내며 주주환원율을 50% 수준까지 올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은행지주 밸류에이션, 23개국 중 22위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얼라인은 지난 2일 국내 증시상장 은행지주사 전체를 대상으로 자본배치 정책 및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대상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국내 은행주 캠페인 공개 간담회에서 “전 세계 23개국의 은행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2위, 중국이



지난 9일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여의도 IFC에서 '은행주 캠페인' 공개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미경 기자

꽤 낫다”라며 “수익성,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없어 펀더멘털 때문에 저평가되는 건 아니다. 바로 주주환원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은행주들은 현재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0.3배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해외 은행들 평균 PBR 1.3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주가수익비율(PE)도 해외 은행들의 평균이 9.5배인데 반해, 한국은 3.1배 수준이다.

얼라인은 주주서한을 통해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기반한 자본배치정책 ▲목표 주주환원율 및 대출자산(RWA) 관리에 기반한 주주환원정책을 오는 2월 9일까지 이사회 결의 및 공정공시로 공식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CET1 비율을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인 10.5%에 맞추고, RWA 성장을 줄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대출 경쟁 탓에 자금이 유보되면서 주주환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환 대표는 “본업 재투자인 대출 자산 성장은 주주 환원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며 “아무리 열심히 해서 대출자산 성장에 1조원을 투입해도 주주가치는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배당에 1조원을 투입하면 그대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과도하게 성장하고 있으니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비율보다 보수적으로 총당회 목표주주환원율을 설정하고 대출 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지는 게 골자”라고 덧붙였다.

최소 목표주주환원율은 50%로 제시했다. 그는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수준은 50%라고 생각한다”며

“예측 가능하게 30%를 환원하겠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안건을 이사회 결의나 공정공시를 통해 2월 9일까지 공표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사회 결의 없이 불충분할 경우 얼라인이 직접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총 표대결 자신…우리금융 M&A 비판

얼라인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1%에 불과한 지분으로 주주제안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이번 은행주 캠페인 역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 표대결이 이뤄져도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총 표대결까지 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폭탄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금 높은 수치의 배당안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매니저나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저희 쪽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금융지주를 겨냥해 신규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작심발언도 이어졌다. 현재 우리금융의 기업가치 수

준에선 신규 M&A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훨씬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은 벤처캐피탈(VC)인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우리금융이 다올인베스트먼트 2000억~3000억원에 인수하면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 PER 85~128배에 거래하는 것”이라며 “다올인베스트먼트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2021년 순이익(648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PER은 5.9~8.9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들에게 M&A가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 좋다고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M&A의 M자도 꺼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메리츠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중기 주주환원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앞으로 3년 이상 최소 50%의 주주환원율을, 신한금융지주는 자본비율을 12%대로 유지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메리츠가 모범 사례인 이유는 이사회 결의 및 공정공시로 강한 수준의 약속을 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서학개미, 테슬라 주가 추락에도 “일단 담자”

해외주식 Click

지난주에만 1억4981만달러 매수
테슬라 주가, 지난달부터 ‘부진’

새해에도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때도 세로 잠시 돌아서는 듯 했지만 곧바로 지난주에만 1억5000만달러 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월2~8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

목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순매수액은 총 1억4981만달러였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부터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 194.7달러였지만 이후 한 달간 36% 이상 하락하면서 123.18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어 올해 첫 거래일인 3일에는 108.1달러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9일 119.7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테슬라 주가 긍정론자로 알려진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도 연초부터 테슬라 매수에 열을 올리며 ‘저점매수’에 나서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디스트리트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매각 자금으로 테슬라 추가 매수에 나서 약 5만8000주를 ARK 펀드에 담았다고 전했다. 캐시우드 CEO는 지난 6일 엔비디아 보유지분 가운데 3만1700주를 매각한 반면 테슬라 주식은 5만8000주 가량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학개미는 테슬라 개별 종목뿐 아니라 테슬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모으면서 테슬라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테슬라 종목의 일수익률 1.5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X 새어즈(TSL·DIREXION DAILY TSLA BULL 1.5X SHARES)가 순매수 5위에 올랐다.

여기에 뉴욕 증시 대표 기술주인 애플도 순매수 상위 3위(2103만달러)에 오르는 등 하락세가 나타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테슬라와 애플 등 개별 종목을 사모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 대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을 얻는 레버리지 ETF를 사모는 투자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2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

컨덕터 베퍼 3X ETF(SOXS·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EAR 3X SHS ETF)로 ICE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역으로 3배를 추종하는 종목에 2681만달러가 유입됐다. 더불어 나스닥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역으로 3배 추종하는 프로셔어츠 울트라프로 숏 QQQ ETF(SQQQ·PROSHARES ULTRAPRO SHORT QQQ ETF)가 4위로 1916만달러 순매수했다.

이 외에도 나스닥 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 3배 추종 ETF인 TQQQ 6위(1452만달러),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 ‘JPST’ 7위(1005만달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금리 3배를 추종하는 TMF 8위(886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다. /이영석 기자 ysl@

증권업계, 올해도 ESG 경영 실천 ‘활발’

미래에셋증권, 사회적기업 지원
KB증권, 태양광발전 시설 구축

증권사들이 연초부터 사회공헌활동, 친환경 전환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SG 경영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SG 평가에서 모두 A 등급을 획득한 미래에셋증권은 올해도 ESG 경영 차원에서 국내 농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8톤의 우리 쌀을 구매해 퇴직연금 가입 고객사에 제공한다.

이날은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에

표는 “과학기술인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위탁운용 사업자로 연금의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까지 총 전력 사용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친환경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KB증권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비용 절감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 친환경 경영 이행을 위해 보유 중인 사옥 두 곳에 연간 16만 킬로와트시(KWh)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 28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나무 50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KB증권은 내연기관 업무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본사 건물 지하에 전기가 충전소도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했다.

이밖에 KB증권은 종이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고객 금융거래 업무 프로세스와 거래내역 통지를 디지털화하고 전사 복합기에 ‘Less Paper 솔루션’을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종이사용량 절감을 실천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ESG 이니셔티브 가입이나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ESG 경영을 고도화해 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키움증권은 계속해서 ESG 활동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엔지니어링, 원전 EPC 사업 본격화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현대엔지니어링이 원전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에 나서기 위한 국내(KEPIC)와 해외(ASME)에서 관련 품질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인증 심사를 거쳐 ‘KEPIC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KEPIC 인증’은 원자력발전소 등의 전력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다. 대한전기협회가 조건을 갖춘 조직과 인원이 KEPIC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격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원전 사업부에서 ▲원자력 기계에 대한 설치·보조품 제조·재료업체로서 금속 및 비금속

재료의 공급 ▲원자력 구조(SN)에 대한 시공·구성품의 제작·재료업체로서 금속 및 비금속재료의 공급 ▲원자력 전기(EN) 1급 전 품목의 설치 ▲공조기기(MH) 및 관련 품목의 설치에 관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월 미국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미국기계학회)로부터 ‘원자력 부문 설치 및 공장 조립(NA)’, ‘부품 및 배관 하위 조립품 등 제작(NPT)’, ‘지지물 제작(NS)’에 대한 인증도 획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해 ASME부터 KEPIC까지 국내외에서 원자력 품질보증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면서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소형모듈원자로(MMR) 사업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